

독립매체가 사는 법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박상규 /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 기자

검지에 살짝 힘주는 일이, 그 찰나의 순간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마우스를 쥔 오른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입에선 한숨이 여러 번 터져 나왔다. ‘발송’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하니, 사직서의 종착지인 사장님 메일함이 저 멀리 남태평양의 섬처럼 느껴졌다. ‘딸깍.’ 그 미세한 마우스 터치음이 천둥처럼 가슴을 쳤다. 사직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 사장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오마이뉴스 직업기자 10년 세월이 끝났다.

스스로 불사른 다리

이 바닥을 완전히 뜰 생각은 아니었다. 프리랜서로 탐사보도를 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취재 아이템을 깊이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가슴속엔 무모한 꿈이 무럭무럭 자라갔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이 생각 하나 부여잡고 사표를 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 밥 한번 먹자고 했다. 마주 앉은 점심식사

자리, 오 대표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사표를 내도 계속 월급 줄게. 4대보험도 모두 적용해서. 너 편한 대로 기사만 쓰면 돼.” 사표를 냈는데도 월급을 주겠다는, 이토록 달콤한 제안이 있나.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정말이지 일주일간 꿈속에서 살았다. 다시 오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 내가 먼저 말했다. “월급 안 받을랍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먹고살게요.” 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번엔 내가 무모한 말을 했다. “저는 오마이뉴스에 다시 입사하지 않는 게 꿈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다. 돌아갈 다리가 건재하고, 언제든 받아줄 곳이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살라야만 했다. 그때 그렇게 비장했다. 2015년 1월 초의 일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낸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싫거나 비난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기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쓰고 싶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많은 시간과

“

2014년 언론사에 사표를 냈고,
2015년 월급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거부했다.
2016년 10억 원을 펀딩했고,
2017년 쫓딱 망해
아침마다 자살을 생각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양진호 사건을 터트렸다.

”

투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이걸 보장하는 매체가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회의적이다. 회사를 떠난 뒤 지리산 아래 구례군에 방을 하나 구했다. 봄에 산나물을 뜯어 취재비를 마련했다. 모르는 사람은 ‘웬 산나물?’ 하지만 고사리 1kg을 뜯으면 1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걸 팔아 취재비를 마련했다. 몸은 고단했으나 부끄럽지는 않았다. 그 비용으로 박준영 변호사와 일명 ‘재심 3부작’을 진행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 보도는 2년이 넘게 이어졌다. 탐사보도는 이토록 지난한 일이다. 이때 대박이 터졌다. 나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3부작’으로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모았다. 돈을 많이 확보했다는 사실보다 퇴사할 때 가졌던 믿음,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돼서 기뻐다. 많은 후배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의 말은 비슷했다. “저도 선배처럼 장기 탐사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총펀딩금액에서 내게 떨어진 돈은 약 1억 5,000만 원. 이걸 밀천 삼아 2017년 1월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만들었다. 뜻있는 기자들을 규합해 시간과 돈을 보장하면 좋은 기사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혼자 10억 원을 펀딩했으니, 3명이면 30억, 10명이면 100억 원을 펀딩 받을 거라 생각했다.

산나물 뜯어 취재비 마련

내가 순진했다. 돈은 꾸준히, 순식간에 없어졌고 기사는 생각만큼 세상을 흔들지 못했다. 정확히 9개월 만에 ‘썩박’을 쳤다. 2017년 9월부터 돈을 빌리러 다녔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나도 먹고살아야 했다. 적금, 보험 등 깎 수 있는 모든 걸 깎다. 현금서비스는 물론이고, 카드로까지 받았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 업체를 제외하고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자존감은 추락했고, 우울증이 왔다.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할 즈음, 한 언론사 간부가 찾아왔다. 그가 다시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우리 매체와 합칩시다. 모두 고용 승계하고, 셜록 이름은 물론이고 모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탐사보도만 계속하시면 됩니다.” 더없이 달콤한 유혹. 다시 일주일을 고민했다. 그리고 거부했다. 죽고 싶어 환장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셜록 아닌가. 망하고 망해, 끝내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버텨보자고 생각했다. 그때도 다시 오래된 꿈을 생각했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인수합병 제안을 거부한 나는 살인범에게 전화를 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 씨에게 말이다. 그와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모두 있다.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으로 삼례 사건 기획을 할 때였다. 나는 기사로 그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진짜 범인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 세상에 공개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까지는 나쁜 인연.

기획이 끝나갈 무렵,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만남에 응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살인범이고,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으라고 하면 받겠다”고 했다. 자신으로 인해 사망한 할머니 유가족을 만나 사과할 뜻이 있으며, 삼례 3인조 사건의 재심도 돕겠다고 했다. 나와 박준영 변호사는 그를 위로하는 뜻에서 물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공장에 다닙니다.”

“한 달에 얼마 벌면서 생활하시나요?”

“조선소에서 일하는데요, 한 400~500만 원 법니다.”

나와 박 변호사는 놀랐다. 당시 아무리 산나물을 뜯어도 취재비는 모자랐고, 우리는 파산위기에 몰렸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보다 사정이 훨씬 낫네요!”

그가 반문했다.

“아니, 한 달에 이 정도도 못 벌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한 달에 400~500만 원 번다는 그의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설록이 망할 무렵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에게 부탁했다.

“돈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는 냉정했다. 월 400~500만 원 버는 건 맞지만 카드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나는 실망을 억누르고 애써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계좌번호 찍어줘요.”

그리고 150만 원이 입금됐다. 전화로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가 말했다.

“정말로 월급은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없어요. 150만 원은 내가 현금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박 기자가 오죽하면 내게 전화를 했겠 습니까. 어떻게든, 잘 버텨보세요.”

살인범에게 돈을 빌린 나. 더는 물러설 곳도, 못할 일도 없었다. 2018년 8월의 일이다. 그의 말대로 버티고 버텼다. 약 2개월 뒤, 설록은 양진호 사건을 터트렸다. ‘양진호’가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찍었을 때 진범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제 유명해져서 서로 얼굴 볼 일 없겠네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답장을 보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진호 사건으로 기사회생

양진호 사건은 설록을 시작할 무렵 제보를 접수



2018년 12월 4일, 시사인이 주최한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탐사보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 <출처·필자 제공>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으로 살인누명을 썼던 강인구 씨(가운데). 왼쪽은 당시 가족을 잃은 박성우 씨, 오른쪽은 진범 이 모 씨다. 세 사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화해했다. <출처·필자 제공>

했다. 약 2년간 여러 이유로 보도가 유예됐다. 양진호 사건을 제대로 터트리면 설록은 일어설 거라 생각 했다. 직업기자로 살아온 10년 세월은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설록 혼자 모든 걸 독점하려는 마음은 버렸다. 단독 욕심으로 이슈가 묻히면 그런 낭패도 없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와 공조한 것은 그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뉴스타파 때문에 특종 효과가 반 토막 나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이슈가 더욱 증폭됐다. 우리는 단독 욕심을 버려 더욱 크게 세상을 흔들 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듯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살인범에게 돈을 빌립니까?’

영똥한 지적은 아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삼례 사건 진범 이 씨는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00년 즈음에 체포됐다.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 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런 그를 검사가 풀어줬다. 또 이 씨는 2016년 삼례 3인조 재심 때 법정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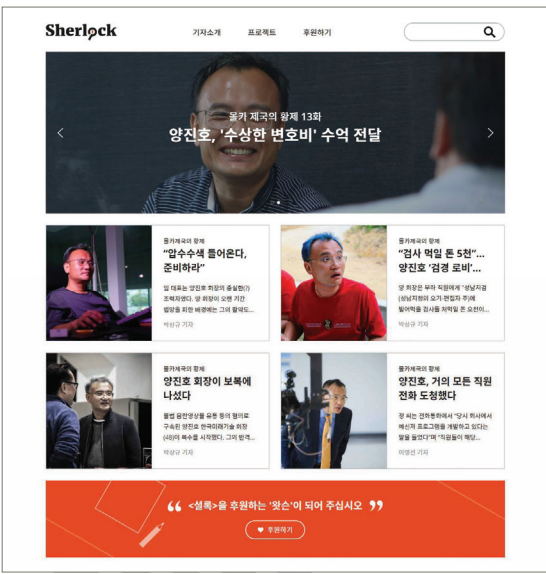
이런 그를 유가족도 용서했다. 그는 최소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경찰보다 관참은 사람이다. 진실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 하다. 진범과 검·경찰의 상반된 모습을 본 것도 탐사보도를 하면서 확인한 것 중 하나다.

나는 2014년 언론사에 사표를 냈고, 2015년 월급 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거부했다. 2016년 10억 원을 펀딩했고, 2017년 졸막 망해 아침마다 자살을 생각 했다. 2018년 여름 살인범에게 돈을 빌렸고, 가을에 양진호 사건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딱 하나를 믿었고, 그 하나가 입증됐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설록에 많은 회원이 몰렸다. 이제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저 하나를 입증하며 전진할 생각 이다. 📰



양진호 사건은 설록을 시작할 무렵 제보를 접수했다. 약 2년간 여러 이유로 보도가 유예됐다. 양진호 사건을 제대로 터트리면 설록은 일어설 거라 생각했다. 직업기자로 살아온 10년 세월은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출처-www.neosherlock.com>